

Glengarry Glen Ross에 나타난 타락한 비즈니스 윤리로 인한 인종 및 민족간의 갈등

황 규 철

I

미국인의 직업 윤리 의식의 변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근원에는 청교도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청교도주의자들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지만 신에 의해 선택된 소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소수만이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면 신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Bernstein 87). 미국의 정치와 사회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초기의 청교도주의자들 중에서 John Cotton(1584-1652)의 “기독교인의 직업”(“Christian Calling”)이란 에세이에는 청교도 신학의 커다란 딜레마 가운데 하나인 신앙심과 세속적인 삶을 양립시키기 위한 고뇌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직업이 없는 것은 계으를 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고, 직업이 있으면서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더러운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181). Cotton으로 대표되는 초기의 청교도주의자들은 직업을 단순히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신으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척도로 인식한다. 또한 John Cotton의 외손자로 후기 청교도주의를 대표하는 Cotton Mather(1663-1728)도 선행에 대한 에세이집 *Bonifacius*(1710)에서 이웃에 계으른 사람들이 있으면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들에게 직업을 제공하라고 권고한다(218). 그럼에도 불구하고 Cotton Mather는 근면을 통한 성공의 온당한 욕망과 근면의 결과 다가올 수 있는 탐욕을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다(Bernstein 92).

청교도주의자들이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직업이 종교적 규정에서 개인적 윤리로 후퇴하면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청교도주의의 위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던 18세기 미국의 이성과 계몽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Benjamin Franklin(1706-1790)이다. 그가

청교도의 중심지인 보스턴을 떠나 필라델피아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쳤다는 사실은 소수에게만 구원을 약속하는 청교도주의자들의 독단적인 신이 아닌 인간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신을 섬겼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Autobiography* (1791)에서 “신의 영원한 명령, 소명(召命), 영벌(永罰)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은 신의 섭리대로 움직이며, 신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고, 영혼이 불멸하며, 이승에서든 내세에서든 권선징악이 실현되리라는” (80)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 점에서 그는 인간의 원죄와 신의 분노를 강조하여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조한 동시대의 Jonathan Edwards와 대조된다. 비록 그가 목표로 했던 도덕적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실패했지만 자기 향상을 위해 설정한 절제, 침묵, 규율 등을 포함한 13가지 덕목은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자아 발전을 도모하는 현대 미국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덕목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추목할 만한 사실은 Franklin 스스로 애초에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설정한 덕목이 결국엔 세속적인 성공과 부의 획득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88). 따라서 Franklin은 초기 청교도주의의 엄격한 교리에서 어느 정도 이탈함으로써 결국 청교도주의가 세속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리라는 것을 예시한 인물이다.

시공을 뛰어넘어 20세기 중반의 직업 윤리를 대표하는 작품인 *Death of a Salesman* (1949)의 주인공 Willy Loman은 과거에 자신이 외판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윌리: ... 그 당시 인간관계에는 개성이 있었네. 하워드. 그 안에는 존경과 우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 오늘날 그것은 시들고 메말라 버렸어. 그리고 우정이나 개성에 집중할만한 기회는 존재하지 않아.

Willy: ... In those days there was personality in it. Howard. There was respect, and comradeship, and gratitude in it. Today, it's all cut and dried, and there's no chance for bringing friendship to bear-or personality. (81)

Willy의 주장에 의하면 외판업자가 성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덕목은 개성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인간관계이다. 하지만 이 덕목은

Franklin이 자기향상을 목표로 열거한 13가지 덕목과 비교해보면 빈약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Willy가 자신의 성공의 표본으로 삼은 David Singleman이란 세일즈맨만큼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과거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직업에 도덕성과 종교적 의의를 동시에 부여했던 초기 청교도주의자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Franklin에 이르러 세속적인 삶의 유지에 필요한 개인적 도덕성을 함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Arthur Miller의 *Death*에서는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성과 인정에 기초한 폭넓은 대인 관계만이 강조된다. 게다가 세일즈맨의 애환을 다룬 *Death*와 자주 비교되는 David Mamet의 *GGR*¹⁾에서는 성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수단도 불사하는 세일즈맨들을 통해서 인본주의에 입각한 폭넓은 대인 관계마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인다.

*Death*의 Willy와 *GGR*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직업인 외판업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일확천금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성공의 열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직업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그런데 외판원이란 직업은 유대 민족의 이산(Diaspora)이래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생활해야 했던 유대인의 대표적인 직업이기도 하다. 이리므로 외판원이란 직업은 가장 미국적인 동시에 가장 유대인과 결부된 직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Death*의 주인공인 Willy의 직업이 외판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GGR*에 등장하는 외판원들이 매매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GGR*에 부동산 중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Mamet이 시카고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 1년 동안 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득한 전기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Dean 195). 부동산 중개업은 단시일 내에 일확천금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배금주의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드러내는 직종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부동산 세일즈맨들의 애환을 어설픈 감상과 도덕적 교훈을 배제한 채 형상화한 *GGR*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타락한 직업 윤리로 변질된 미국의 꿈이다. 미국의 꿈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민주 지도자 협의회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폐어 플레이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면 신으로부터 부여받

1) 이 논문의 텍스트는 Mamet, David. *Glengarry Glen Ross*. New York: Grove Press, 1982.이고, 앞으로 인용 시에는 *GGR*로 약칭하고 면 수만을 표기함.

은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Hochschild 18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전념하면 성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Franklin 식의 미국의 꿈을 재천명한 것이다. 냉혹한 자본주의가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는 20세기 후반의 미국 사회는 미국 역사의 초기에 호소력을 발휘했던 소박하고 낙관적인 미국의 꿈을 단지 허구에 불과한 기만적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킨다.

Mamet은 저명한 미국 작가들이 즐겨 다루는 악몽으로 변질된 미국의 꿈이란 주제가 *GGR*에도 담겨져 있음을 인정하면서 “분투하여 성공하라는 사교의 기반 위에 건립된 미국의 경제생활은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당첨되는 복권과 같다”(Roudane 74)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비즈니스에서 힘있는 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치부되고 힘없는 자의 비윤리적 행동은 범죄로 낙인찍혀 처벌받는 미국의 비즈니스 세계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Mamet에 의하면 고객을 속여 그들이 원치 않던 땅을 사게 만드는 행위는 격려하면서 고객의 명단이 든 파일을 훑치는 것은 범죄로 규정짓는 것은 모순이다. *GGR*은 Mitch와 Murray라는 두 사장의 방침으로 대표되는 타락한 미국의 사업윤리가 비즈니스맨들로 하여금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게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²⁾

그런데 *GGR*을 도덕적 주제와 연관시켜 살펴볼 경우 흔히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이 작품에 인종, 민족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인물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과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그들간의 인종, 민족적 갈등과 반목이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Anne Dean은 *GGR*의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이 직함 뒤에 가려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191-2)하고, Gerald Berkowitz는 세일즈 기술이 정체성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193) 바 있는데, 이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가 그 안에 속한 인간의 물개성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2) 스코틀랜드계 혹은 아일랜드계(Hanks and Hodges 370, 380)인 두 사장이 창조해낸 Glengarry와 Glen Ross란 지명이 풍기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고객이 땅을 구입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제가 된다. 또한 두 사장은 무대에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언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American Buffalo*에도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Grace, Ruthie, Fletcher가 무대에 등장하는 Don, Teach, Bobby의 언행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사성이 발견된다.

전술한 Roudane, Dean, Berkowitz와 같은 비평가들은 공히 이 작품을 미국의 꿈과 결부시켜 설명하면서도 등장인물 개개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가 미국의 꿈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에는 미처 주목하지 못한다.

앞으로 본고는 *GGR*이 세 명의 유대계 세일즈맨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꿈을 상징하는 한 부동산 회사의 타락한 비즈니스 윤리가 촉발시키는 세일즈맨간의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갈등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해 Levene과 Williamson, Roma와의 갈등, Moss와 Aaronow, Roma와의 갈등, Aaronow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타락한 비즈니스 윤리가 통일성보다 다양성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다원적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밝힐 것이다.

II.

*GGR*의 등장인물 가운데 부동산 사무실 실장으로 있는 John Williamson은 WASP이고, 그의 휘하에 있는 네 명의 세일즈맨 중에서 세 명은 유대계 미국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이태리계 미국인이다. 세 명의 유대계 세일즈맨 중에서 Shelly Levene의 성은 구약에 나오는 야곱(Jacob)과 레아(Leah)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 레위(Levi)에서 파생된 성(Cohn-Sherbok, 315)이므로 그는 유대계이다. 그가 유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그가 '값싸고 무가치한 쓰레기'란 의미의 이디시(Yiddish) 단어 'dreck'을 사용한다는 점(20)이다. Levene과 마찬가지로 유대계 세일즈맨인 Dave Moss의 성은 구약의 모세(Moses)를 영어로 표기(Hanks and Hodges 377)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고 신으로부터 받은 토라(Torah)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인물로 유대인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과 같은 유대계 세일즈맨인 George Aaronow의 성은 구약의 아론(Aaron)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모세와 누이 미리엄(Miriam)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탈출시키는데 공헌을 한 인물이다. 여기에서 상기해야 할 사실은 엄격하고 비타협적인 모세와 달리 아론이 타협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도 평화를 사랑하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이다(Jacobs 1). Aaronow는 네 명의 세일즈맨들 중에서 가장 어눌한 언어를 구사하지만 '미친 짓'을 의미하는 'meshugaas'란 이디시 단어를 사용하기

도 하고(87), 사복경찰을 '계쉬타포'에 비유하는 발언을 함으로써(89) 그가 유태인임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세 명의 유태계 세일즈맨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Levene은 GGR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Death*의 주인공 Willy Loman과 가장 유사한 인물이다. 두 등장인물은 유태계 미국인이라는 점, 저조한 실적으로 퇴출을 당한다는 점, 사장(들)과의 친분을 강조한다는 점, 실적보다 인간성에 호소한다는 점,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점,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공유한다. 하지만 Loman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반면 Levene은 자살 대신 도둑질을 해서라도 세일즈맨으로서의 현 위상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점이 다르다.

Levene과 Williamson과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 1막 1장에서 Levene은 중국 식당에서 실장인 Williamson에게 저조한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우수 고객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여기에서 Levene의 말이 많고 그 속도가 빠른 이유는 Levene의 생사여탈권을 Williamson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Roma가 글렌개리 하이랜드(Glengarry Highland) 고객 명단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다.³⁾ 이에 대해 Williamson은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며 Levene이 지난번에 네 개의 고객 명단을 갖고도 계약 체결에 모두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Levene은 그 중 한 건은 계약자의 전처(前妻)가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계약은 체결된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변한다. 계약자가 계약에 동의했으면 그가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건 없건 계약은 성립된 것이며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Levene의 주장이다. Levene은 최근엔 실적이 저조했지만 65년도에는 글렌로스 농장(Glen Ross Farms) 땅을 팔아 실적을 올린 것과 80년대 초반의 실적 차트에서 자신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운이 아닌 실력이라고 역설한다(18). 하지만 Williamson에게는 최근 실적의 결과만이 중요할 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 과거의 실적이나 두 사장과의 친분에 대한 언급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Levene은 지금 자신이

3) 이 작품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Glengarry'는 스코틀랜드의 고원 지대를 연상시키지만 실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투자 가치가 적은 늪지대로 40대의 세일즈맨 Roma가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땅의 이름이고, 'Glen Ross'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농장으로 과거에 50대의 유태계 세일즈맨들이 고객에게 판매하여 실적을 올린 땅의 이름이다.

원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토로한다.

르빈: 빌어먹을 30일, 내가 30일에 열리는 세일즈 대회에서 실적 차트에 오르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해고할 거야. 나에게서는 고객 명단이 필요하네. 나는 지금 그게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난 끝장이야.

Levene: *Bullshit* the thirtieth, I don't get on the board the thirtieth, they're going to can my ass. I need the leads. I need them now. Or I'm gone, ... (18)

해고의 위기에 처한 Levene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Williamson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 직원에게는 우수 고객 명단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에 Levene은 계약 체결의 가능성이 희박한 휴지 조각과 다름없는 고객 명단으로 기준 실적을 초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그는 높은 실적으로 우수 고객 명단을 확보한 직원은 계속 높은 실적을 올리는 반면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직원은 계속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다가 Levene은 말꼬리를 바꾸어 Willy Loman처럼 자신을 실적 차트로 판단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 평가해달라고 간청한다(22). 그는 Jerry Graff, Moss, Mitch뿐만 아니라 Williamson 자신도 그가 올린 실적의 혜택을 입고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이나 인정이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우수 고객 명단임을 재차 강조한다. Levene은 딸을 위해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적인 이유를 털어놓기도 하고, 사장 Murray에게 말해서 그를 해고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지만 Williamson은 상부의 지시대로 따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결국 Levene은 Williamson으로부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이 B 목록 명단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2막에서 Levene과 Williamson의 갈등은 1막에서 비열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Williamson에 대한 Levene의 설욕전으로 시작된다. Levene이 Nyborg 부부에게 마운틴 뷰(Mountain View)의 8유니트를 판매하고 돌아온 직후 계약의 대상에 따라 그 유효성이 판가름난다는 Williamson의 비아냥거림에 Levene의 분노는 폭발한다.

르빈: 왜 그 세일이 유효하지 않지? 야, 옛 먹어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너는 네 할 일도 몰라. 남자와 직업은 같은 거야 그런데 너는 네 일을 망쳤어. 너 내가 무슨 말하는지 듣고 있니? 내가 말하는 “이 달 말의 실적 차트 …” 넌 사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내가 알게 뭐야. 너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 너는 센스도 없고 배짱도 없는 놈이야. 너 고객하고 마주 앉아 계약해본 적 있니? 있어? 이 치사한 작자가 해봤을까 … 너 고객하고 마주 앉아서 …

윌리엄슨: 내가 당신이라면, 잠자코 있겠소, 셸리.

Levene: Why should the sale not stick? Hey, *fuck* you. That's what I'm saying. You have no idea of your job. A man's his job and you're *fucked* at yours. You hear what I'm saying to you? Your “end of month board …” You can't run an office. I don't care. You don't know what it is, you don't have the *sense*, you don't have the *balls*. You ever been on a sit? *Ever*? Has this cocksucker ever been . . . you ever sit down with a cust

Williamson: I were you, I'd calm down, Shelly. (75-76)

Levene의 욕설에는 직업과 남성성을 동일시하고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실장보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세일즈맨이 우월하다는 사고가 나타나 있다. Levene의 욕설에도 불구하고 Williamson은 그를 해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당일 아침에 82,000불 어치의 땅을 팔아 큰 실적을 올린 Levene에게 Williamson이 해고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Williamson은 Nyborg 부부의 속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계약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Levene은 상황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고 말하는 여유를 보인다.

그러나 Levene은 실장을 비난하는데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사무실을 턴 범인임을 시인하는 발언을 한다.⁴⁾

르빈: … (그의 길을 막으며) 넌 인간쓰레기야. 넌 역겨운 중산층

4) Levene은 자신이 올린 실적이 도난 당한 고객 명단 때문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Williamson에게 자신이 올린 실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Jerry Graff와 협상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장면(77)에서 이미 자신이 범인임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

인간이야. 내가 원하는대로 냉담한 태도를 보여도 좋아. 어린애도 그 정도는 알지. 로마의 말이 옳아. (사이.) 네가 무언가를 꾸며내려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하든자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 (사이.)

윌리엄슨: 음. (르빈이 팔을 들어올린다.)

르빈: 이제 너하고 애긴 끝났어. (사이.)

윌리엄슨: 내가 꾸며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르빈(사이): 뭐라고?

윌리엄슨: 내가 꾸며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르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Levene: ... (*Blocking his way*) you're scum, you're fucking white-bread. You be as cold as you want. A *child* would know it, he's right. (*Pause.*) You're going to make something up, be sure it will help or keep your mouth closed. (*Pause.*)

Williamson: Mmm. (*Levene lifts up his arm.*)

Levene: Now I'm done with you. (*Pause.*)

Williamson: How do you know I made it up?

Levene (*Pause*): What?

Williamson: How do you know I made it up?

Levene: What are you talking about? (98-99)

Levene는 로마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사무실을 찾아온 링크에게 그가 지불한 수표가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다는 Williamson의 발언이 꾸며낸 것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중에 드러낸 것이다. Williamson은 유독 어제만 계약서를 은행에 가져가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추궁한다. 이에 대해 Levene는 자괴감이 섞인 어조로 자신이 사무실에 몰래 침입한 도둑이라고 살토한다. 흥친 고객 명단의 행방을 대면 경찰에게 밀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Williamson에게 Levene는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Jerry Graff에게 5,000불 이상을 받고 팔았는데 자신은 2,500불만 받았다고 자백한다. 나머지는 누가 착복했느냐는 실장의 질문에 Levene는 Moss라고 대답한 후 전날 자살을 생각했던 자신을 고객 명단을 훔치는데 동참하도록 종용한 장본인도 Moss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Levene는 도둑질을 해보고 나서야 도둑이 아닌 세일즈맨이 자신에게 어울린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Levene의 말에는 도둑질과 세일즈의 경계가 이

미 허물어져 버린 현실에서 경계를 설정하려는 자기기만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illiamson은 Levene을 고발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말을 반복하고 사복경찰에게 알리려고 한다. 위기감을 느낀 Levene은 도둑질의 대가로 받은 2,500불을 모두 내놓으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실장은 이제는 돈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Levene은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모든 세일즈 배당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다짐한다. 이를 비웃듯 Williamson은 Levene이 계약을 체결한 Nyborg 부부가 세일즈맨들과 이야기를 즐기는 미친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104). 결국 Levene은 경찰에 체포됨과 동시에 직장에서 해고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Levene과 Williamson은 계급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종 및 민족적 갈등을 겪는다. 이를 입증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르빈: ... 그리고 자네는 뒤를 돌아다 볼 줄 몰라. 왜냐하면 자네는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Levene: ... And you can't look *back*. Cause you don't know *history*.
(76)

Levene의 이 말은 자신이 과거에 세운 실적을 실장이 무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Williamson이 대표하는 WASP 세력이 미국 사회에서 소수 인종 및 민족에게 가한 억압과 착취의 역사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Levene과 Williamson간에 빚어지는 갈등은 미국 사회의 각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 세력인 WASP와 소수 인종 및 민족간에 야기되는 갈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evene으로부터 세일즈 기술을 전수 받은 Roma는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는 스승인 Levene과 달리 뛰어난 세일즈 기술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물이다. Roma가 Levene으로부터 세일즈 기술을 물려받은 데다가 스승보다 세일즈 기술이 뛰어나다면 두 사람의 세일즈 방식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이다. 2막의 전반부에서 Levene이 스웨덴계 미국인 Nyborg 부부 앞에서 펼쳤던 세일즈를 재현하는 장면과 1막 3장에서 Roma가 플로리다에 위치한 글렌캐리 하이랜드 땅을 팔기 위해 고객 Lingk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장면⁵⁾은 두 세일즈맨이 세일즈에 사활을 건다는 점,

5) Levene이 Nyborg 부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재현할 때에는 침착하고 태연한

고객이 세일즈 품목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로 고객을 현혹시킨다는 점에서 닭은꿍이다.

그런데 Levene의 소위 구식 세일즈와 Roma의 신식 세일즈를 특징짓는 차이는 전자가 종교적 색채를 띠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Levene이 고객이 수표에 서명하게 하는 과정을 '개종시키는' (72)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잘 나타나 있다.

르빈: ... 그들은 서명을 했네. 리키. 그건 대단했어. 그건 아주 대단했어.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시들어 버리는 것 같았어. 아무 몸짓도 없이 ... 아무 기척도 없이. 두 사람 모두. 내가 신에게 맹세하건대 그들은 모두 부지불식간에 기력이 떨어졌네. 그리고 그는 손을 뻗어 펜을 잡고 서명을 하지,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건네주는 거야. 그녀는 서명을 하지. 그 서명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지.

Levene: ... They signed, Ricky. It was *great*. It was *fucking great*. It was like they wilted all at once. No *gesture* ... nothing. Like together. They, I swear to God, they both kind of *imperceptibly slumped*. And he reaches and takes the pen and signs, he passes it to her, she signs. It was so *fucking solemn*. (74)

이와 같이 Levene은 Nyborg 부부를 설득하여 수표에 서명하게 만드는 데에서 성적 황홀경과 신성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성적 희열이란 세속적 비유가 사용되긴 했지만 종교적으로 엄숙함과 무아지경을 느끼는 것은 그의 성(姓)이 신전의 사제를 보좌하는 신성한 역할을 담당한 레위족(Levites)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과 절묘하게 연결된다.⁶⁾ 이에 반해 Roma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똥(shit), 배변(dump), 오줌(piss), 불륜의 성 관계(fucks), 성적인 쾌감(orgasm), 음식(food)과 같은 종교적 색채가 배제된 단어만을 사용하여 지극히 세속적인 분

취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대목은 그가 Nyborg 부부의 집안에 있는 찬장의 정확한 위치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실토했는 장면(74)이다.

6) 레위족(the Levites)은 Levi의 후예로 신전이 존재하던 시대에 사제가 제물을 바칠 때 목소리나 악기로 반주를 하거나 문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Jacobs 315).

위기를 연출한다.

두 사람의 세일즈가 보이는 또 다른 차이점은 Levene의 세일즈가 물질적 풍요에 고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반면 Roma의 세일즈는 심리적 안정에 고객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점이다. Levene의 세일즈의 초점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일확천금의 꿈을 세일즈에 이용한다는데 있다.

르빈: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때는 지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어 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차에 실린 여행가방을 발견할 겁니다. 어떤 작자가 가방 안에 돈을 가득 담은 채 문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해리어트 ...”

Levene: I tell them. “This is now. This is that *thing* that you’ve been dreaming of, you’re going to find that suitcase on the train, the guy comes in the door, the bag that’s full of money. This is it, *Harriet* ...”
(72)

Levene은 Nyborg 부부가 머지않아 거액의 차액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Roma의 세일즈의 초점은 막대한 부의 획득이 아니다. 그는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탐욕이 아닌 불안 혹은 두려움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부동산 투자임을 암시한다.

로마: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만일 발생할 지도 모르는 그 사건이 현실로 가시화 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나는 오늘 내 관심을 끄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듯 그 일을 처리할 겁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요. 나는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안전이 나에게 중요하면 오늘 나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Roma: There is something else. What is it? “If It happens, AS IT MAY for that is not within our powers, I will *deal* with it, just as I do *today* with what draws my concern today.” I say *this* is how we must act. I do those things which seem correct to me *today*. I trust myself. And if security concerns me, I do that which *today* I think will make me

secure. (49)

Roma의 세일즈에는 상황에 따라 행동 패턴을 바꾸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 Roma는 일관성이 결여된 가치관을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고객의 불안 심리의 해소방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 Levene과 Roma의 관계는 일견 우호적인 것처럼 보인다. 2막에서 Levene이 Nyborg 부부에게 마운틴 뷰(Mountain View) 땅을 팔아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자 Roma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Roma는 사복 경찰로부터 심문을 받고 나온 Moss가 Levene에게 욕을 하자 Levene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71). 그 뿐만 아니라 Levene과 Roma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해 계약서를 도난 당한 실장에게 번갈아 가며 심한 욕설을 퍼붓는다.⁷⁾

하지만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는 Levene과 Roma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면은 두 사람이 James Lingk 앞에서 환상적인 즉흥 연기를 펼치는 대목(78-88)이다. Lingk가 모습을 나타내자 Roma는 Lingk에게 Levene을 어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유럽 세일즈 및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부사장 D. Ray Morton이라고 소개한 후 방금 그에게 플로리다에 위치한 블랙 크릭(Black Creek) 땅을 팔았다고 덧붙인다. Roma는 Lingk의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Morton을 오헤어(O'Hare) 공항까지 배웅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다가(81) 5개월 전에 Morton 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서 Kenilworth로 급히 가야 한다고 말을 바꾼다(82). Lingk는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이 곳에 왔으며 이는 부인 Jinny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다. Lingk는 부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기한이 계약 일로부터 사흘인데 그의 수표가 오늘 수요일에 현금화되었다면 금요일까지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Roma는 Lingk의 수표가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하면 월요일까지가 계약 취소 가능 시한이라고 둘러댄다. Lingk는 부인이 당장 계약을

7) Zeifman은 Roma가 Williamson에게 한 욕설에 대해서 남성성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에서 상대방을 여성, 어린이, 동성애자라고 칭하는 것이 최대의 모욕이라고 설명한다(126). Worster도 Roma의 욕설에 등장하는 여성, 동성애자, 어린이가 냉소와 따돌림의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389). 두 비평가의 이러한 지적은 Levene이 Williamson에게 한 욕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취소하지 않으면 주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하라는 충고를 했음을 밝힌다(90). Roma는 Lingk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그의 고민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고 말한다. Lingk는 자신에게는 Roma와 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고백한다. 이에 Roma는 계약이 파기된 것이나 진배없다고 Lingk를 진정시킨 다음 그의 인생은 오로지 자신의 것이라고 설득한다. Roma가 Lingk에게 해주는 조언은 그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부인에 대한 Lingk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취소 위기에 몰린 계약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 Levene의 조력과 Roma의 뛰어난 임기응변과 권모술수에도 불구하고 Roma가 Lingk와 맺은 계약은 Williamson이 Lingk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의 계약서가 도난 당하지 않고 은행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수표가 전날 오후 현금화되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다.

Roma와 Lingk는 공히 참된 우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전자는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후자는 이를 진정으로 갈구하는 상이점을 보이므로 두 사람 사이의 참된 우정은 존재할 수 없다. 세일즈맨과 고객 사이에 우정이 존재할 수 없다면 세일즈맨 사이에 우정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Levene과 Roma 사이에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동료애는 과연 진실한 것인가?

Levene이 Williamson의 강압에 못 이겨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한 범인이 자신과 Moss임을 밝힌 직후 심문을 받고 나온 Roma는 세일즈맨들의 우수성과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105). 또한 Roma는 오늘 Levene이 Lingk 앞에서 펼쳤던 즉흥연기가 아주 훌륭했다고 칭찬한다.

로마: ... 헬: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동안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아주 오랫동안. 난 "머신, 이 분이 바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 분이 바로 ..." 당신 알아요? 난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말을 해야 했는데. 내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 고객 앞에서 펼친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건 ... 그건 ... 그리고 실례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했어요 ... 그것은 오래된 수법이었지요. 아시다시피, 나는 요새 잘나가고 있어요. 그게 어쩐다는 거죠? 내가 당신으로부터 배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식사 안했죠?

르빈: 나 말인가.

로마: 예

르빈: 음.

Roma: . . . Shel: I want to talk to you. I've wanted to talk to you for some time. For a long time, actually. I said, "The Machine, there's a man I would work with. There's a man. . . ." You know? I never said a thing. I should have, don't know why I didn't. And that shit you were slinging on my guy today was so good . . . it . . . it was, and, excuse me, 'cause it isn't even my place to say it. It was admirable . . . it was the old stuff. Hey, I've been on a hot streak, so *what?* There's things that I could learn from you. You eat today?

Levene: Me.

Roma: Yeah.

Levene: Mm. (105)

Roma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특유의 다변성을 상실한 Levene은 사복 경찰 Baylen의 완력에 이끌려 심문실로 끌려 들어간다.⁸⁾ Levene의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과 는 대조되는 Roma의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면모는 그가 Williamson에게 "르빈은 내 손바닥 안에 있네. 내 돈은 내 돈이고 그가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되든 그 액수의 반은 내 것이네. 그의 몫을 계산할 때에는 내 몫도 염두에 두며 계산하게." (107)라고 비정하게 말하는 대목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에는 Roma가 여태까지 Levene에게 보여 주었던 칭찬이나 호의가 모두 가식과 허위였음을 밝혀 준다.⁹⁾ 또한 Roma가 Williamson에게 "내 돈은 내 돈이고 르빈의 돈은 우리 것일세." (107)라고 덧붙이는 대목은 Roma와 Williamson이 Levene을

8) 사복 경찰 Baylen의 성(姓)은 독일계 성(姓)인 Bayerlein에서 파생된(Hanks and Hodges 39) 것으로 추정되므로 독일계인 Baylen이 유대계인 Levene을 강제로 심문실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가 유대인에게 자행한 대학살을 연상시킨다.

9) GGR의 등장인물들간에 우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로는 Dennis Carroll (43)과 Robert Brustein(29)이 있고 배우로는 굿맨 극장과 존 골든 극장에서 Roma 역을 맡았던 Mamet의 절친한 친구 Joe Mantegna (Kane 258)가 있는데, 이들의 오판의 원인은 전자의 경우 2막 후반부에서 Levene을 놓고 Roma와 Williamson간에 오가는 대화를 간과하고 후자의 경우 자신이 맡은 등장인물에 대한 애정이 지나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착취하는 한 패거리임을 입증해 주는 또 다른 단서가 된다.

Roma와 Williamson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유대계 등장인물들과 그들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잠시 논제에서 벗어남을 무릅쓰고 언급하겠다. 먼저 두 사람은 계급간의 차이 즉 유능한 직원과 직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실장으로서 갈등을 보인다.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Roma가 체결한 계약이 실장의 발언으로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Roma가 실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다. 두 사람간의 갈등은 미국 사회에서 소수 집단인 이태리계와 주류 세력인 앵글로 색슨계와의 갈등이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Roma가 Williamson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작품의 결미에서 두 사람은 가장 유능한 직원과 상사로서 견고한 유대감을 과시한다. 이러므로 Roma와 Williamson간에 형성된 갈등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일 뿐 이들간에는 상업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공생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Williamson과 Roma로 대표되는 각각의 종교인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이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양분되었지만 두 종교가 유대교를 박해한 적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킨다.

Dave Moss는 Levene처럼 50대의 유대계 세일즈맨이다. 1막 2장에 등장하는 Moss와 Aaronow는 공히 과거에 글렌 로스 농장(Glen Ross Farms) 땅을 많이 팔아 높은 실적을 올렸지만 지금은 실적 면에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세일즈맨들이다. 이 중에서 Moss는 세일즈 대회에서 2위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동료 Aaronow를 설득시켜 우수 고객 명단을 훔치게 한 다음 Jerry Graff에게 팔아먹을 음모를 꾸민다. 그가 화요일 저녁 식사를 하러 중국 식당에 같이 들어온 Aaronow를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올라미를 씌우기 전에 Aaronow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폴란드계와 인도계 고객에 대한 편견이다. 폴란드계 고객에 대해서 Moss는 그들이 일단 돈을 꾸면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28)고 말한다. 또한 Moss는 인도계 고객이 민족적 우월감이 대단하고(29), 특히 인도계 여성의 얼굴 표정이 "죽은 고양이와 방금 성관계를 맺은 것"(30)처럼 기묘하다고 말한다. 인도계나 폴란드계 고객에 대한 Moss의 편견은 세일즈맨의 관점에서 바라본 근거 없는 일반화에 지나지 않는다.¹⁰⁾

10) 폴란드계 고객에 대한 편견은 Levene에게도 나타나고(21), 인도계 고객에 대한 편견은 Roma에게도 나타난다(63).

그런데 Moss가 Aaronow에게 본격적으로 꺼내는 화제는 자신이 속한 부동산 회사의 두 사장인 Mitch와 Murray에 관한 것이다. Moss는 두 사장의 엉뚱한 발상의 소산인 세일즈 대회로 인해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oss는 자신들이 올린 실적의 수수료 중 10퍼센트만 차지하고 나머지를 회사에 갖다 바쳐야 하는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Mitch와 Murray에게 있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직 동료인 Graff가 독자적으로 간호사 고객 명단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하여 그들을 상대로 세일즈에 전념한 결과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한다. Graff와 달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다음 Moss는 그들을 착취하는 Mitch와 Murray에게 보복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Moss의 복안은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5,000장의 우수 고객 명단이 세일즈 대회가 열리는 30일 이후 도심에 위치한 본사로 송달되기 전에 훔쳐 Graff에게 1장 당 1불씩 받고 팔아치운 다음 반씩 착복하자는 것이다.

하루 밤에 2,500불을 벌 수 있는 호기라고 Aaronow를 유인한 다음 Moss가 다음으로 제시하는 조건은 Aaronow가 고객 명단을 훔치는 일을 오늘밤에 해야한다는 것이다. Moss는 경찰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온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 밤 알리바이를 만들 것이고 Aaronow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자신의 계획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Aaronow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Moss는 만일 경찰이 공범을 대라고 추궁하면 Aaronow를 지목하겠다고 협박한다. Aaronow가 왜 하필이면 자신이나고 불만을 터뜨리자 재수 없게도 그가 자신의 올라미에 걸려든 것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Aaronow는 Moss의 추상적인 계획에 동조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Moss는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시켰을 뿐(46)이라고 반박한다. Moss가 Aaronow에게 “내 목적은 내 소관이라 알 것 없고 네 목적은 2,500불이지. 동참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게 말해. 네가 안 할 거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걸.”(46)이라고 한 말은 Aaronow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여 이용하려는 Moss의 용의주도함과 비정함을 드러낸다.

그런데 Aaronow에게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교묘한 화술로 유인하는 이 대목에서 Moss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집트를 탈출하는 모세에 비유하고 있다(Stafford 192)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스: ... 조지, 자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해 주지. 자네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걸세. 그리고 우리는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네. 즐겁게 해주려고, 개같은 토스터나 받으려고 ... 또 ... 또 ... 그리고 사장이란 작자가 만들었지 ...

애러노우: 그 말이 맞아 ...

모스: 그 놈이 그런 규칙을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놈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애러노우: 그 말이 맞아 ...

모스: 내 말이 신의 진리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지. 정말 그렇다고 맹세하네. 내 나이에. 빌어먹을 작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걸 보다니: "1위는 이번 달에 캐딜락을 탄다. 추신. 두 명은 해고된다."

애러노우: 허참.

Moss: ... George, let me tell you what you do: you find yourself in *thrall* to someone else. And we enslave ourselves. To *please*. To win some fucking *toaster* ... to ... to ... and the guy who got there first made *up* those ...

Aaronow: That's right ...

Moss: He made *up* those rules, and we're working for *him*.

Aaronow: That's the truth ... That's the *God's* truth. And it gets me de-pressed. I *swear* that it does. At MY AGE. To see a goddamn: "Somebody wins the Cadillac this month. P.S. Two guys get fucked."

Aaronow: *Huh*. (35-36)

Moss는 Aaronow에게 그들이 예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그와 함께 회사를 탈출하여 새로운 인생을 꾸려나가자고 종용한다. 이는 Moss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 모세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도 도덕, 종교적으로 괴리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Moss와 Roma와의 갈등이 잘 나타나있는 2막에서 Moss는 예상대로 사복 경찰로부터 사무실을 텅 빈인 용의자로 지목되어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나와 동료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Moss가 다른 인물들보다 Roma에게 분노와 적의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커다란 실적을 올리고 의기양양해 하는 Levene에게 Moss가 욕설을 한 것에서 비롯된다. Moss와 Roma간의 반목과 질서는 생존경쟁이 치열한 정글과 같은 직장에서 실적 면에서 1위와 2위를 다투는 숙명의 라이벌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하지만 Moss와 Roma 사이에 형성된 갈등은 미국 사회에서의 유대계와 이태리계라는 소수 민족 집단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카톨릭간의 갈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Moss가 세일즈 대회를 앞둔 부조리한 상황을 '중세'에 비유(32)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중세에 무소불위의 세력을 지닌 카톨릭의 중심지가 로마였고 그 지명이 현재 세일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Roma라는 점과 연결되므로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Moss가 냉소적인 어조로 Roma를 '손 주교' (Bishop Sheean)라고 부르는데 이는 카톨릭에 대한 유대인의 뿌리깊은 증오와 적개심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단서이다.¹¹⁾ 그러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해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Moss와 Roma간의 갈등은 중세에 카톨릭이 유대교를 박해한 역사적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aronow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상사를 위협하거나 그에게 뇌물을 건넨 적도 없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기 때문에 GGR에 등장하는 다른 세일즈맨들과 다르다(Cohn 161). Aaronow에 대해서 Mamet은 성공의 열망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대변인에 가장 가까운 등장인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oudane 75). 그는 간호사들을 부동산 매매 고객으로서 설정할 경우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Moss의 주장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34), Nyborg 부부에 대해 예전에 River Glen 땅을 매매할 때 겪어본 결과 혐오와 실망을 느꼈다고 표현(64)함으로써 Levene이 Nyborg 부부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화될 것임을 예견하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또한 도둑이 들어 엉망이 된 사무실을 보며 Aaronow는 두 사장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물어 보고(55) 그들이

11) Roma란 성이 연상시키는 역사상의 사건은 로마군에 의한 유대인의 이산과 카톨릭의 중심지인 로마를 중심으로 유대인의 학살을 주도한 십자군 운동이다. 참고로 유대인에 대한 로마군의 박해의 역사는 로마군이 기원전 63년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시작되어 기원후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과 그 신전을 파괴하면서 유대인의 이산이 시작된다(Ludwig 88-89). 그리고 1215년에 Inocent 교황이 즉위하여 소집한 4차 Lateran 종교 회의의 결과 유대인에게 뱃지를 강제로 패용하도록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대인의 박해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유대인이 추방당하는 양태로 나타난다(Ludwig 94).

당황할 것이라고 염려하는(59) 대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돋보인다. 그는 1막 2장에서 Moss의 뒷에 걸려 우수 고객 명단을 훔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Levene과는 달리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도덕적 강인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객 앞에서 세일즈에 전념할 수 없다고 Roma에게 고백하여(56) 자신의 무능함을 질책하기도 한다. 그가 고객과의 세일즈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세일즈를 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타적 성격과 일말의 도덕적 양심이 세일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이기적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그가 타고난 세일즈맨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는 2막이 시작된 직후 그가 학교에서 2를 곱해도 변화가 없는 수들이 존재한다고 배운 적이 있다고 Williamson에게 말하는 대목(52)에서 찾을 수 있다. 2를 곱해도 변화가 없는 수는 '0' 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은 사실과 다르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의 말의 진위의 여부가 아니라 2를 곱해도 변화가 없는 수들이 존재한다는 그의 믿음이다. 그를 제외한 세일즈맨들이 언급하는 숫자는 Levene의 경우 Nyborg 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벌어들인 82,000불, Moss의 경우 우수 고객 명단을 Graff에게 판 대가로 벌어들인 5,000불 혹은 그 이상의 액수, Roma의 경우 Lingk 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벌어들인 6,000불로 그들의 머리 속에는 '0'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올리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타고난 세일즈맨이 아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는 우수 고객 명단을 절대로 내주지 않는 회사의 비정한 방침 때문이기도 하다.

Aaronow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주위 동료나 상사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등장인물들과 뚜렷한 갈등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2막을 통해서 그는 1막 2장에서 야기된 Moss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의 또 다른 장점은 그가 사복 경찰 Baylen으로부터 심문을 받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다는 점이다. Mamet은 Aaronow의 침묵을 이 작품에 도덕적 힘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말미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를 거두는데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작가는 Levene이 범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Aaronow가 범인일 것이라고 독자나 관객이 빗나간 추측을 하도록 Aaronow가 고객 명단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물어보고(59), 경찰 앞에서는 불안함을 느낀다고 Roma에게 고백하고(61), 사복 경찰 Baylen으로부터 심문을 받고 나서 Moss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89) 장면을 삽입하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Aaronow와 다소 긴장된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로는 사복 경찰 Baylen이 있는데 이때 유대계인 Moss와 Aaronow가 Baylen의 모욕적이고 불손한 언사에 Roma에 비해 훨씬 강한 불만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계 사복 경찰 Baylen과 유대계 세일즈맨들과의 갈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박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게다가 Aaronow는 사복 경찰 Baylen을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인물이란 점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율통성이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Aaron과 유사하다. 그가 작품의 결미에서 “제기랄, 나는 이 직업이 싫어.”(108)라는 절규에는 직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고객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게 만드는 부동산 세일즈에 대한 그의 강한 혐오가 나타나 있다.

III.

*GGR*은 타락한 직업 윤리와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미국의 꿈이 인종 및 민족 집단간의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유대계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형상화된다. 전술한 바 있는 Clinton 대통령이 정의한 미국의 꿈은 인종 및 민족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미국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GGR*의 부동산 중개 회사의 방침이 일단 커다란 실적을 올린 세일즈맨만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에게 실적을 올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일즈맨들은 반칙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GGR*의 비판의 표적은 세일즈맨이 아닌 세일즈맨들을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회사의 방침이다. 직업을 인생과 동일시하는 세일즈맨들이 두 사장이 제시하는 부도덕한 방침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그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게다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비윤리적인 방침을 내려 폭리를 취하는 권력자들이 범람을 교묘히 피해가며 견제함을 과시하는 반면 사소한 도둑질을 한 세일즈맨들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작가가 비판의 메스를 가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많은 비평가들은 *GGR*과 미국의 꿈 이데올로기와의 긴밀한 연관성에 집착한 나머지 기만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미국의 꿈이 미국 사회를 구

성하는 다양한 집단간의 인종, 민족,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간과한다. GGR에 등장하는 세일즈맨간에 잠재해 있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긴장과 알력을 표면화시키는 요인은 더욱 많은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두 사장이 만든 비도덕적인 방침이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회사의 방침 하에서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여야 하는 세일즈맨들간의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반목과 충돌이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교묘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Mamet은 GGR에서 부동산 회사의 비정하고 불공정한 방침이 비즈니스 윤리를 타락시키고 이러한 왜곡된 윤리가 바람직한 형태의 다원적 사회 실현의 걸림돌이 됨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참고문헌

- Berkowitz, Gerald M. *American Drama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2.
- Bernstein, Paul. *American Work Values: Their Origin and Development*.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97.
- Brustein, Robert. "The Last Refuge of Scoundrels." *The New Republic* 6 June. 1988: 29-31.
- Carroll, Dennis. *David Mame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 Cohn, Ruby. "Oh, God I Hate This Job." *Approaches to Teaching Miller's Death of a Salesman*. Ed. Matthew C. Roudane.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of Association of America, 1995. 155-162.
- Cohn-Sherbok, Dan. *The Blackwell Dictionary of Judaica*.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2.
- Cotton, John. "Christian Calling." *The American Puritans: Their Prose and Poetry*. Ed. Perry Miller. Garden City: Anchor Books, 1956, 172-182.
- Dean, Anne. *David Mamet: Language as Dramatic Action*.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 Press, 1990.
- Franklin, Benjamin.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New York: Collier Books, 1962.
- Hanks, Patrick, and Flavid Hodges, eds. *A Dictionary of Surname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8.
- Hochschild, Jennifer L. *Facing Up to the American Dream: Race, Class, and*

- the Soul of the N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5.
- Jacobs, Louis. *The Jewish Religion: A Companion*. Oxford: Oxford Univ. Press, 1995.
- Kane, Leslie. "Interview with Joe Mantegna." *David Mamet: A Casebook*. Ed. Leslie Kan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92. 249-269.
- Ludwig, Theodore. *The Sacred Paths of the West*. New Jersey: Prentice Hall, 1994.
- Mamet, David. *American Buffalo*. New York: Grove Weidenfeld, 1976.
- _____. *Glengarry Glen Ross*. New York: Grove Press, 1982.
- Mather, Cotton. "From Bonifacius." *The American Puritans: Their Prose and Poetry*. Ed. Perry Miller. Garden City: Anchor Books, 1956. 216-221.
- Miller, Arthur. *Death of a Salesman. The Portable Arthur Miller*. Ed. Christopher Bigsby. New York: Penguin Books, 1995.
- Roudane, Matthew C. "An Interview with David Mamet." *Studies in American Drama 1945-Present*. Eds. Philip C. Kolin and Colby H. Kullman. Vol. 1. 1986. 73-81.
- Stafford, Tony J. "Visions of a Promised Land." *David Mamet's Glengarry Glen Ross: Text and Performance*. Ed. Leslie Kane.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6. 185-194.
- Worster, David. "How To Do Things With Salesmen: David Mamet's Speech-Act Play." *Modern Drama* 37 (1994): 375-390.
- Zeifman, Hersh. "Phallus in Wonderland: Machismo and Business in David Mamet's *American Buffalo* and *Glengarry Glen Ross*." *David Mamet: A Casebook*. Ed. Leslie Kane.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2. 123-136.